

## 전주고 야구, '청룡'과 '봉황' 안고 정상에 서다!



지난 9월 1일 제52회 봉황대기전국고교야구대회 결승에서 경기상업고를 6대 3으로 물리치고 우승한 전주고 야구부원들이 시상식 후 서울 목동야구장 그라운드에 앉아 상장과 트로피를 안은 채 모자를 힘껏 공중에 날리며 감격을 표출하고있다.

## 전주고, '봉황대기'도 우승 ... 올해 2관왕 등극

전주고 105년 역사상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전주고 야구부가 창단 1세기를 맞아 쓰고 있는 '세기의 전설'이다. 지난 1925년 창단한 전주고 야구부는 최근 한 달 반 새 메이저 대회 타이틀을 두 개나 석권, 명실공히 국내 고교 최강으로 우뚝 섰다.

모교 야구부는 지난 7월 6일 제79회 청룡기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우승한 데 이어 9월1일 제52회 봉황대기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또다시 우승컵을 들어 올려 5만 동문 가슴을 벅차게 했다. '청룡기'와 '봉황대기' 결승 상대는 각각 마산용마고, 경기상업고였다. 전주고는 마산용마고를 14대5로, 경기상업고를 6대 3으로 각각 물리치고 두 대회를 석권했다.

전주고는 고교야구 열풍이 뜨겁던 지난 1985년에도 제39회 황금사자기전국고교야구대회 결승에서 광주진흥고를 9대2로

누르고 우승했다. 메이저 대회 우승컵을 품에 안기는 '황금사자기' 이후 이번이 39년만이다.

전주고 야구부는 2000년대 이후 침체기를 겪기도 했으나 현 주창훈 감독 부임(2018년) 이후 주목할 만한 성적을 올렸다 지난 4월 국내 최대 규모인 신세계이마트배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준우승, 조만간 '큰 일'을 낼 것임을 예고했다.

국내 고교야구 4대 메이저는 '황금사자기', '봉황기', '청룡기', '대통령배' 대회다. 여기에 신(新) 메이저라 일컬어지는 '신세계이마트배'까지 합치면 5대 메이저이다. 이중 전주고는 이미 3개 우승컵을 쓸어 담았고 나머지 두 개 대회에선 준우승했다. 현재 기세라면 다섯 개 메이저를 모두 석권하는 커리어 그랜드 슬램도 머잖았다. 전주고의 메이저 '겹 우승'으로 인한 고무적인 소식도 날아든다.

지난 7월말 일본 고시엔대회 우승으로 일본열도를 떠들썩하게 했던 재일교포계 국제고와 전주고 교류전이 거론되고 있다.

동문 후원기금도 답지하고 있다. '봉황기' 우승 직후 김동수(51회) 전주고·북중총동창회장이 모교 야구부 지원에 5,000만원을 쾌척한 것을 비롯해 농협 전북투자도본부(본부장 김영일·64회) 3,000만원, 조성용(51회) 대두식품 회장 1,000만원, 이강만 동문(59회) 1,000만원 등 기관과 기수 및 개인별로 총동창회에 야구부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후원자 명단, 4면)

신정균(54회) 전주고·북중총동창회 사무처장은 "모교 스포츠부는 성적에 비해 물적·금전적 뒷받침이 타 명문고에 비해 아쉬운 게 사실"이라며 "이번 우승을 계기로 노송 동문님들의 모교 사랑, 후배사랑을 자랑스레 쏟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전주고 야구부 선수명단(총35명)

- ◆3학년(8명)  
이한림(포수), 정우주, 이호민, 송관우(이상 투수), 최윤석, 엄준현(이상 내야수), 성민수, 서영준(이상 외야수)
- ◆2학년(14명)  
김유빈, 박민서(이상 포수), 최승윤, 박시현, 백현호, 김영빈, 박지훈, 정재훈, 서주안, 성재우(이상 투수), 박한결(내야수), 정석주, 윤도연, 고준휘(이상 외야수)
- ◆1학년(13명)  
조준웅, 김민재(이상 포수), 이시후, 주지훈, 고우혁, 홍준서, 최민성, 윤석준(이상 투수), 김서준, 홍재욱(이상 내야수), 유재민, 박지황, 최성음(이상 외야수)
- ◆부장 최광현, ◆감독 주창훈
- ◆코치 최대곤, 윤희영, 송후섭



# 전고야구 100년... 2024년 마침내

1

## 서장을 열다 (1925~1984)



전주고 야구부는 개교(1919) 6년만인 1925년 처음 창단했다. 당시 교명은 5년제 '전주공립고등보통학교'. '전주고보'라 칭했고 야구선수들은 가슴에 'ZENSHU' ('전주'의 일본식 발음)라 쓰인 유니폼을 입었다(사진1). 전주고보 야구팀은 1930년대 전국 대회에 출전하며 모교 이름을 알렸으나 태평양전쟁(1941~1945) 시기 유야무야 해체됐다.

광복 직후 전고 야구는 재창단, '한국야구의 아버지'인 명장 김영조 감독 조련하에 전국 최강 중 하나로 급부상했으나(사진2) 1960년대 '학력 제일' 중시 풍조 속에서 다시 해체(1968)됐다. 이후 모교 중흥 주역인 최득엽 교장(14회) 시절 동문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 속에 총동창회 주도로 세 번째 재창단(1977.3.26.)된(사진3) 전고야구는 1978년부터 1981년까지 4년 연속 '봉황기' 대회 8강에 진출하고 제60회 전국체육대회 고등부에서 우승(1979)(사진4) 하는 등 기염을 토하며 클라이막스로 치달았다. 당시 감독은 김만두 동문(37회)이었다.



2

## 첫 번째 전설 '황금사자기' 우승 (1985.9.28.)

롯데파이오니아

대한고속보험

Kodak

코닥필름

NAME	T	N	1	2	3	4	5	6	7	8	9	10	11	12	R	H	E	B	NAME
1 4정현익	전	주	0	0	0	0	0	0	0	0	0	0	0	0	3	1	0	5	1 김창희
2 7박기철	전	주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7 김승수
3 이승환	전	주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3 김주현
4 김정환	전	주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2 양기철
5 나성남	전	주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 4 김형남
6 김정환	전	주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6 8 조성관
7 유지철	전	주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7 9 안현욱
8 오현주	전	주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8 1 박성기

마침내 극적인 첫 번째 전설이 쓰여졌다. 1985년 9월, 제39회 황금사자기전국고교 야구대회에서 우승했다. 전주고 야구가 중흥을 다짐하며 재창단(1977)한 지 8년만에, 첫 창단부터 치면 60년만에 맞은 감격이었다.

'황금사자기' 본선 1회전 상대는 그해 2관왕인 서울고, '작은거인'인 에이스 박성기(64회)의 투타에 걸친 활약으로 서울고를 8대 2로 돌려세운 뒤 난적 부산고, 군산상고를 연파하며 결승에 올라 강적 광주진흥고마저 9대 2로 대파, 꿈에 그리던 '황금사자기'를 품에 안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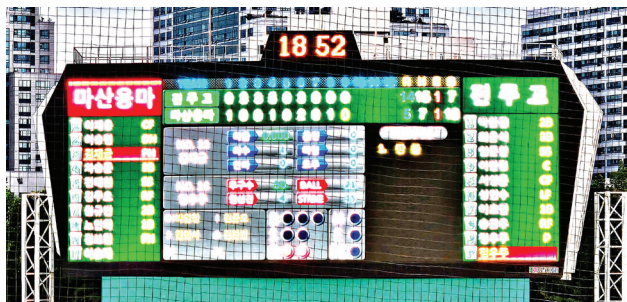
이날이 마침 9월 28일, '서울 수복(收復)기념일'은 '전주고 야구 수복기념일'이 됐다. 경기장인 동대문운동장은 물론 서울전역이 '전고 땅'이고 전고인 함성으로 진동했다. 감격은 귀환 후에도 이어졌다. 전북 도청 앞에서 도민환영대회가 열렸고 선수들을 태운 오픈카가 시민 환호 속에 전주시내를 가로질렀다. 대회 감독상은 김만두 감독, 최우수선수상은 주장 임기정, 최우수투수상은 박성기가 받았다.





# ‘겹 우승’ 전설을 쓰다!

## 3 두 번째 전설 ‘청룡기’ 우승 (2024.7.16.)



두 번째 메이저 우승도 지나긴 목마름 끝에 왔다. ‘황금사자기’ 우승 후 무관에 그쳤던 전주고는 지난 7월 16일 제79회 청룡기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우승했다.

주창훈 감독이 이끈 전주고는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시속 150km가 넘는 ‘광속구 투수’ 정우주와 ‘거포’ 이한림(이상 3학년) 등의 고른 활약으로 마산용마고에 14대 5 대승을 거두고 무려 39년만에 ‘전고 찬가’를 다시 올렸다. 전주고는 2회말 선취점을 땀겼으나 3회초 볼 넷 1개와 3루타, 2루타, 적시 단타 등으로 앞서며 6-1로 점수차를 벌렸다. 4회초 4번 타자인 포수 이한림(사진5)의 3점 홈런으로 9대 1까지 달아난 전고는 9회말 에이스 정우주를 마운드에 올리며 깔끔히 마무리, 14대 5로 경기를 끝냈다. 주창훈 감독이 서울에서 스카우트해 조련시킨 투수 정우주는 ‘초고교급’을 유감없이 뽐내며 미국 프로야구 스카우터들의 눈길까지 끌었다. 이한림이 대회 최우수선수상(MVP)을 받았다.



## 4 전설은 계속된다! ‘봉황기’ 우승 (2024.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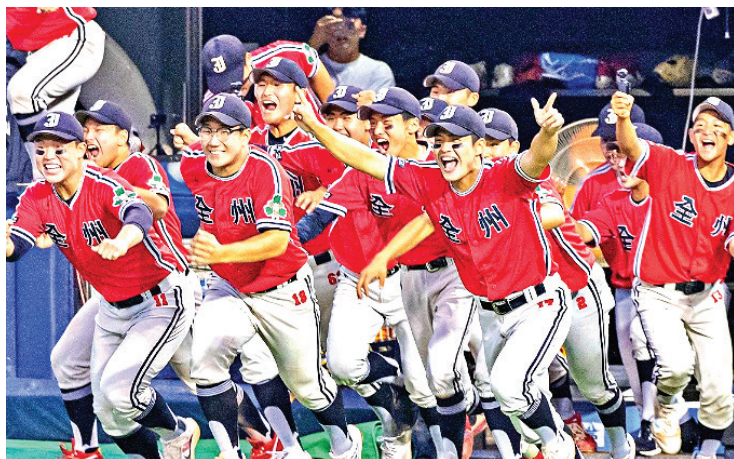


전주고가 ‘청룡기’에 이어 ‘봉황기’까지 차지하며 2024 고교최강을 굳혔다. 전주고는 지난 9월 1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52회 봉황대기전국고교야구대회 결승에서 경기상업고를 6대 3으로 제압했다.

전주고는 에이스 정우주와 ‘원투 펀치’ 주포 이호민이 청소년국가대표로 소집돼 ‘차포’를 떼고 상대를 맞는 입장. 이에 비해 경기상업고는 전력손실 없이 ‘돌풍’을 일으키며 결승까지 올라왔다. 전주고가 6회말까지 3대 0으로 앞섰으나 경기상업고는 싱싱한 전력으로 7회초, 8회초에 1점씩 따라붙어 스코어는 3대 3 동점. 그러나 돌풍은 여기까지였다.

전주고는 8회말 1사 1, 2루에서 서영준의 좌중간 2루타 등으로 3점을 뽑아 달아났다. 9회초 1사 1, 2루의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전주고 1년생 투수 김영빈이 배짱 좋게 틀어 막았다. 전주고는 대회최우수선수상(서영준), 우수선수상(김영빈), 감독상(주창훈), 지도자상(최광현 부장), 공로상(라구한 교장)을 각각 받았다.

주창훈 감독(사진6)은 대회 후 인터뷰에서 “내년엔 ‘대통령배’우승으로 모든 메이저 대회를 석권하고 싶다”고 밝혔다. 전주고 야구는 아직도 배고프다!



### 측시

#### 천년 봉황, 전설의 노송대에 깃을 접네

백두와 금강과 태백과 지리  
벼락과 천둥도 잠재우고  
돌풍도 쓸어버려  
구원한 신념, 여기에 전주고등학교 있었네

노송대에 어린 서기 얼마나 가슴 벅차던가  
만물의 종자 슬방을 아니던가  
억만년 질푸른 조선술 아니던가

일어나라 꿈이여  
드세게 곧추세워라 이상이여  
구원한 신념이여

세우고 필력이며 나무였나니  
우리 전주고등학교의 기상  
한반도를 이거하던 용들의 탄생과  
호남의 유구한 정신  
여기서 햇불로 일어 섰나니

백호가 다녀가고  
청룡도 모교의 지붕 위에 사리를 틀었고  
드디어 봉황까지 찬란한 빛으로  
나래쳐 여기에 이르렀나니  
천년에 한번 온다던 봉황이  
우리네 상아탑에 깃을 접었나니  
오, 이 감격이여, 이 영광이여!

대한의 동광 여기서 한 세기 배출하였나니  
영원한 용트림이여, 호남 전설의 굽이침이여!

전고야구부가 봉황대기를 물고 왔나이다  
다만 십이척의 배로 왜적 수백척을 치던 충무공처럼  
열악한 전고 야구부가 천하를 통일하였나이다

유구한 모교 전통 위에 봉황대기를  
금빛 영광을 하나 더 얻었나이다

야구방망이가 휘둘러 치는 것은  
우리네 좌절이며, 두려움이며,  
암울한 운명이었습니다  
방망이가 허공 가르면 분쇄한 것은  
어둠이며, 사악함이며, 부정의이었습니다

방망이가 이제 하늘에 올랐던 것은  
희망의 울먹음이요, 승리의 금빛 함성이었습니다

썰까만 후배들이여, 어기찬 야구부 영웅들이여  
왔느냐, 보았느냐, 이겼느냐  
우리의 영원한 모교에 봉황새를 물고 왔느냐  
아, 목이 메이는구나

자랑스런 모교여, 풍설을 뚫고 일월 더불어  
나부끼고 필력일 우리네 영혼들이여!

소재호(41회·시인, 전 전라북도 예총회장)



## 2024 제79회 청룡기, 제52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전주고 야구부 우승 축하식

• 일시 : 2024. 9. 9. 18:30 • 장소 :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그랜드볼라홀(본관5층)

### 식 순

- |              |                |             |
|--------------|----------------|-------------|
| 1. 내빈소개      | 5. 야구부 활동영상 시청 | 9. 축시 낭독    |
| 2. 개회 및 국민의례 | 6. 환영사         | 10. 후원금품 전달 |
| 3. 경과보고      | 7. 축사          | 11. 만찬      |
| 4. 선수단 소개    | 8. 답사          | 12. 폐회      |

## 환영사



전주고·북중총동창회  
회장 김동수(51회)

존경하는 전주 고·북중 5만여 동문과 전북특별자치도민, 출향 도민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의 영광이 있기 까지 묵묵히 피땀을 흘려온 전주고 야구부 학생 선수와 감독, 코치, 지도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모교는 1919년 개교 이래 대한민국의 역사와 동고동락을 해온 유서 깊은 명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105년 전주고의 역사와 대한민국 스포츠사(史)에 또 하나의 새로운 금자탑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 모교의 야구부는 99년 전인 1925년 창단과 1977년 재창단 이후 메이저급 대회인 제39회 황금사자기(1985년) 우승 외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교 100주년을 기점으로 동문 선배님들과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 야구부 학생 선수와 감독, 코치 선생님들의 뼈를 깎는 노력에 힘입어 올해 제79회 청룡기와 제52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우승이라는 대업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번 성과는 전북을 연고지로 하는 프로야구 구단이 없는데다, 오랫동안 전북에 동지를 틀었던 프로농구 KCC마져 타지로 떠나버려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버린 전북도민과 우리 동문들의 자존감을 한껏 높여주었습니다.

오늘의 자랑스러운 성과를 이뤄낸 라구한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주창훈 감독 등 코칭 스태프와 학생 선수단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모교의 압도적인 우승 쾌거 이후 전북도민들과 전북특자도교육청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약속해주셔서 오는 10월에 있을 전국체육대회와 내년의 각종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이 기대됩니다. 지금 성장하고 있는 2학년, 1학년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도 내년에는 더욱 두드러질 것입니다.

학생 선수 여러분!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동문뿐 아니라 도민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힐링이 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교의 이 영광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총동창회에서는 아낌없는 지원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포츠 후원금은 명문 전고의 생명수입니다!

전주고 스포츠부가 모교 명예를 한껏 빛내고 있습니다.

동문님의 도움은 100년 명문, 모교 앞날에 크나큰 희망의 빛줄기가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큰 걸음도 고맙지만 열 사람의 한 걸음, 백 사람이 함께 하는 반걸음은 더욱 소중합니다. 아무쪼록 동문님들 십시일반 도움으로 노후 후배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후원 계좌| 농협은행 503-01-363807(전주고등학교)

## 총동창회 야구부후원금 모금현황

※2024.9.5. 현재 (단위 : 1만원)

△김동수(51회) 5,000 △농협전북본부(본부장 김영일·64회) 3,000 △동문야구단 300  
△임명환(28) 100 △황호연(36회) 200 △김정태(39회) 10 △최병길(43회) 10  
△45회 동기회 100 △이근화(48회) 100 △조성용(51회) 1,000 △신홍상(52회) 500  
△김종만(52회) 10 △서방현(52회) 10 △이균재(52회) 20 △53회 동기회 100  
△송호균(53회) 30 △54회 동기회 100 △조호진(57회) 100 △임진형(57회) 10  
△양환옥(58회) 100 △58회 동기회 500 △이강만(59회) 1,000 △60회 동기회 200  
△64회 동기회 100 △김옥주(64회) 30 △67회 동기회 100 △최용철수(70회) 10  
△김종윤(73회) 100 ◇합계 총 1억2천740만원

## 전주고 야구 1백년사 연표

- ▲1925 교내 특별활동 일환으로 '전주고보'(전주공립고등보통학교) 야구부 창단.
- ▲1925.9.27. 전라북도내 첫 고교 야구경기, 전주고보 대 이리농림 경기에서 전주고보가 3대2 승리(전라북도체육회 간 '전북체육 1백년사').
- ▲1930.6.24. '호남중등학교 야구대회' 우승.
- ▲1931.7.30. '오오사가 아사히신문사 주최 전국 야구대회' 조선 제1차 예선에서 전주농업, 광주중을 각각 15대3, 13대1로 대파하고 결승에서 군산중을 역시 4대1로 제압, 본선에 진출했으나 준결승에서 경성상업에 2대7로 패배. 같은 해 10월 '제7회 조선신경경기대회' 중등부 야구 1회전에서 용산중에 4대6으로 패배.
- ▲1933.7. 중등학교 야구 호남예선에서 목포상고에 8대14로 패배, 1회전 탈락.
- ▲1936.7. '전일본중등학교 야구선수권 호남대회' 예선 1회전에서 대전고에 2대6으로 패배;해 탈락. 이듬해(1937) 같은 대회 예선에서 이리농림에 10대21로 패배, 탈락.
- ▲일제 강점기 말 태평양전쟁으로 인해 야구부 해체.
- ▲1946 광복 직후 '한국야구의 아버지'인 진안군 주천면 출신의 거장 김영조(1923~1981) 감독 지도 아래 전고(=당시 '전북공립중학교') 야구부 재건. 졸업후 연세대 야구부로 스카우트됐던 26회, 27회 동문들이 주전으로 활약, 해방공간에서 단숨에 전국 최강으로 도약.
- ▲1947.5.23. '전북중등야구대회' 우승. 같은 해 9월 22일, 같은 대회서 또 우승. 이듬해(1948.5.23.) 라이벌 전주공고와 야구경기에서 승리(10대2).
- ▲1953.8.23. '해방경축 전북체육대회' 야구 우승.
- ▲1954.9.16. '해방경축 전북체육대회' 야구 우승. 같은 해 10월18일 '제35회 전국체육대회'에 전북 고교야구 대표로 선발, 출전.
- ▲1968 교내 불미스런 사건으로 인해 교장 명으로 해체.
- ▲1972~1976 전국적인 고교야구 열풍 속에 전주고 야구부 재건 논의, 구체적인 추진. 후원단체 결성 및 전국 동문 대상 체육 후원금품 모금 운동 전개.
- ▲1976.6.16. '전주고등학교야구부창단준비위원회'(회장 임재홍·24회) 결성, 6개월만에 1,100여만원 모금. 이후 '전주고등학교야구부후원회'로 개칭.
- ▲1977.3.26. 총동창회 주도, 성대한 '전주고야구부' 재창단식. 초대 감독 겸 코치에 김인복 씨 초빙, 야구부장에 모교 교사 강일부(38회) 동문 선임. ※이후 1980년대 후반까지 김금현, 백기성, 김만두 씨 등이 감독 역임.
- ▲1977.4. / 1977.10. 대한체육회 일본 홋카이도 지부장 김중두 동문(18회)을 비롯한 재일본 전주고·북중동문회(회장 유심평 동문)에서 모교 야구부에 현금 및 용품지원. ※김중두 동문은 1979년에도 재차 현금과 용품 지원.
- ▲1979.4.6. '호남우수고교야구대회' 우승. 예선에서 전주상고(5대1), 청주고(1대0) 제압 후 본선에서 청주고(1대0), 광주상고(3대0)를 이긴 뒤 결승에서 강호 광주일고에 3대2 승리를 거두고 창단 3년만에 첫 우승. 같은 해 8월, '봉황기'전국고교야구대회' 8강 진출 기염.
- ▲1979.10. 제60회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우승(결승에서 인천고와 4대 4로 비긴 후 추첨승). 재창단 3년만에 첫 전국대회 제패를 기념해 플래카드와 함께 시가행진 등 시민 환영식 개최.
- ▲1980.6.16. '전주고등학교야구부후원회'(회장 임재홍), 홍보 및 소식지인 '전고야구' 창간호 발간. 이후 제3호(1982.6.16.)까지 발간.
- ▲1980.8. '봉황기'전국고교야구대회' 16강에서 강호 선린상고를 제압(6대2)하고 8강 진출. 같은 해 '제61회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준결승에서는 선린상고에 1대4로 패배, 3위 입상. ※1978~1981년까지 4년 연속 '봉황기' 8강 진출.
- ▲1982.7.20. '전고야구동호인회'(회장 최공영·39회) 결성. 전주시내 중, 고교 야구부 육성 지원 및 모교 야구 후원 기금 마련운동 전개. 같은해 '대통령배전국고교야구' 4강 입상.
- ▲1983.7. '대붕기'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배명고(4대1), 성광고(8대0)를 연파하고 4강에 올랐으나 강호 경북고에 저 결승 진출 좌절.
- ▲1984.1.31. 김광호 동문(39회) 지원으로 운동장 동쪽(현 실내 연습장 위치)에 최초로 전천후 실내야구연습장 준공. 같은 해 9월, '제38회 황금사자기전국고교야구대회' 4강 입상.
- ▲1985.9.28. '제39회 황금사자기전국고교야구대회' 우승(감독 김만두·37회). 결승 상대인 광주진흥고에 9대2 승리. 감격적인 전주시내 카 페레이드 및 도청 앞 도민환영식 개최.
- ▲1987.6.16. 전주고·북중 총동창회(회장 서정상·24회), '전주고체육기금' 1억30만원 기증.
- ▲1989.6.18. 야구부 중흥 기원, 모교에 '야구탑' 건립(36회 동문, 졸업 30주년모교방문 기금).
- ▲1996 야구부 소속 신축.
- ▲1998 야구부 소속 2층 증축.
- ▲1998.7. '대붕기'전국고교야구대회' 우승.
- ▲2003.8.9. 전주고야구부후원회 창립총회(서울 삼호호텔).
- ▲2005.8. 프로야구 쌍방울레이더스 주전 출신인 동문 박성기 감독(64회) 부임.
- ▲2006. 10. '제87회 전국체육대회' 공동 우승(전주고, 광주일고). ※이 대회에서 모교 농구부도 우승. 전국체전 역사상 처음으로 한 학교가 구기 단체 2종목 동반 우승.
- ▲2007.7.16. '대붕기'전국고교야구대회' 준우승.
- ▲2007.7.20. / 2008.11.4. 전주고야구부후원회(회장 김생기·62회), '전주고야구부 후원의 밤' 개최. 후원금(1,000만원)과 물품 전달. ※이 전주고야구부후원회는 2012년까지 5년간 총 1억 5,000만원을 모금, 모교에 전달.
- ▲2012.2.13. 이중익 전 재경동창회장(43회), 모교 야구부 발전기금 5,000만원 쾌척.
- ▲2013.1.1. (주)부영 이종근 회장, 야구부 발전기금 1억원 쾌척. 이종근 회장은 이후에도 3회에 걸쳐 총 3억원을 모교에 기탁.
- ▲2013 야구부 소속 리모델링.
- ▲2017.4.21. 전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서형수 회장, 야구발전기금 1,000만원 전달.
- ▲2017.9.22. 2017 전라북도지사배 야구선수권 남고부 우승.
- ▲2018.3. 주창훈 감독 부임.
- ▲2019.7.31.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전국고교야구대회' 준우승. 결승 상대인 서울 배명고에 3대 6으로 패배.
- ▲2020 야구부 실내연습장 및 숙소 대대적 재건축.
- ▲2021.10. '2021고교야구주말리그후반기 전라권' 우승.
- ▲2022 '대통령배전국고교야구대회' 준우승.
- ▲2022.9.16. '전주고스포츠후원회'(회장 김홍규·44회) 출범.
- ▲2023.4. '2023고교야구주말리그전반기 전라권' 우승.
- ▲2024.3. '명문고야구열전' 준우승. ※2021, 2023년에도 준우승.
- ▲2024.4. '2024고교야구주말리그전반기 전북·대전권' 우승.
- ▲2024.4.22. '2024 신세계이마트배전국고교야구대회' 준우승.
- ▲2024.7.16. '제79회 청룡기전국고교야구대회' 우승.
- ▲2024.8. '대통령배전국고교야구대회' 3위.
- ▲2024.9.1. '제52회 봉황대기전국고교야구대회' 우승.
- ▲2024.9.9. 야구부 인조잔디 구장(10,000여 평) 준공.